

수박주스 'OUT'...치솟는 수박 가격에 팔수록 손해

수박 가격 한 달 전보다 66%↑...광주 카페서 수박주스 품질 처리 역대급 장마에 과일값 폭등...유통업체, 추석 앞두고 수급 골머리

“어? 수박주스 품질인가요?”
21일 오후 12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카페 주문접수대 메뉴판에는 수박주스에 ‘품질’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해당 카페 사장은 “요즘 수박 한 통에 3만원이 넘는다”며 “주스를 팔아도 마진이 남질 않는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아예 품질 처리를 해 버렸다”고 말했다.
밭길을 옮겨 인근 다른 카페에 들어갔다. 이곳 카페 역시 수박주스는 ‘품질’이었다. 수박주스 품질 이유는 앞서 사례와 같았다. 수박이 워낙 비싼

탓에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쉬움에 또 다른 카페를 찾았다. 다행히 시럽을 넣지 않은 ‘100% 수박주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이곳 사장은 “수박값이 올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메뉴에서 빼기로 했다”며 “수박 한 통에 주스가 8잔 정도 나오는데, 4000원을 받아서는 손해를 볼 지경”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카페에서도 수박주스는 품질이었다. “여름철이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팔렸지만, 원재료 값이 워낙

치솟아 메뉴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역 카페 사장들의 하소연이다.
극한호우를 동반한 역대급 장마로 수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카페에서 수박주스가 사라지고 있다. 장마 이후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과일주스를 찾는 발길은 늘고 있지만, 비로 인해 당도가 떨어지고 가격까지 치솟아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물 가격정보 시스템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지난 18일 상품 수박 한 통의 광주지역 중도매인 판매 가격은 3만2300원으로, 평년 가격(2만2833원) 대비 41.46%(9467원) 올랐다.
한 달 전(1만9420원)에 비해서는 66.32%(1만2880원)이나 급등한 것이다. 이는 중도매인 판매가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더 비쌀 것

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수박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철 대목에도 불구하고, 주스 판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박 외에도 날씨 탓에 각종 과일·야채류 가격이 치솟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토마토는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중도매인 판매 가격이 5kg당 1만7300원으로 평년(1만3197원) 대비 31.09%(4103원) 올랐고, 멜론(8kg)도 평년(2만8033원)보다 29.49%(8267원) 오른 3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용 사과로 쓰이는 홍로(상품·10kg)는 10만3000원으로 평년(7만4520원)보다 38.21%(2만8480원), 1년 전(6만9340원)에 비해서는 48.54%(3만3660원)이나 급증했다.

또 배는 올해 수확한 원형(상품·15kg)이 6만600원에 거래되면서 평년(5만4700원)과 1년 전(4만6600원)보다 각각 10.78%, 30.04%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포도(캠벨얼리·5kg) 역시 5만1600원으로 평년(2만3850원)보다 116.35%(2만7750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유통업체 관계자는 “꽃이 피는 봄부터 냉해와 우박 피해가 있었고, 이어 장마와 태풍, 폭염으로 낙과 및 병충해 피해가 발생해 대부분 과일 물량이 줄었다”며 “추석 명절 선물로 쓰이는 과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추석 과일값을 고려해 저가형 가성비 선물세트와 혼합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을지연습 동참...심폐소생술 교육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로비에서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광주은행 임직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고흥 '녹동 신항 동문 디 이스트' 그랜드 오픈

272세대 규모...84㎡ 면적만 구성 유리난간 적용 탁 트인 조망 장점

녹동 신항 동문 디 이스트(조감도)는 녹동 프라자호터 5층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녹동 신항 동문 디 이스트는 지역 주택조합에서 가장 어렵다는 토지계약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는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70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6층, 4개 동, 27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또 게스트룸을 비롯해 입주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 시설, 시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시니어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각 세대 엘리베이터와 연계된 지하주차장 적용으로 약전후에도 주차가 편리, 별도의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장과 광폭주차장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이밖에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100m)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녹동신항이 위치, 마트와 전 통시장도 가깝다. 병원과 관공서,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반경 1.5km 내 녹동초, 녹동중, 녹동고, 고흥군립도서관 등이 조성돼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와 교육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조인트리, 북구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개발' 주관 사업자로 선정

㈜조인트리는 광주시 북구의 'AI 기반,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개발'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조인트리는 이에 따라 파트너사인 인공지능 및 영상분석 전문기업인 ㈜지아이랩과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AI 기반,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개발'은 북구가 제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R&D) 사업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1차년도 5억원, 2차년도 8억원 등 총 13억원의 연구개발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면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조달 혁신제품으로 등록된다.
'AI 기반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부정 주차 감지 시 알림 방송을 송출, AI 분석을 통해 전용 주차구역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범죄 및 화재 같은 위급 상황 감지 시 관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무인 주차장 관리뿐 아니라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장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종민 조인트리 부사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지역 청년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AI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가능하다. 지역의 신산업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8.80 (+4.30)
↑ 코스닥	888.71 (+11.39)
↑ 금리 (국고채 3년)	3.795 (+0.066)
↑ 환율 (USD)	1342.60 (+4.30)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